

‘LCK포’ 침묵 무기력 호랑이

KIA 광주서 SK에 1-6 패배



KIA가 ‘호랑이 칼러’ 김광현의 제물이 됐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 4개의 안타를 뽑는데 그치며 1-6으로 패했다.

로페즈는 7회까지 2실점으로 SK 타선을 막아내며 4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에 성공했지만 팀 타선이 불발에 그치면서 패전투수의 명예를 썼다. 로페즈의 연속행진은 ‘3’에서 멈춰섰다.

반면 올 시즌 4경기에 등판해 6.23의 방어율로 2패에 그쳤던 SK 선발 김광현은 침묵을 지킨 KIA 타선 덕에 6회까지 단 하나의 피안타만 기록하며 시즌 첫 승을 낚았다.

광활하던 0의 균형이 우익수 김다원의 아쉬운 수비와 함께 무너졌다.

6회초 SK 첫 타자 최정희의 플라이싱 타구가 외야로 향했지만 김다원의 글러브가 이를 비껴가면서 3루타가 됐다. 1사 3루에서 임훈이 살짝 밀어진 공이 중전안타가 되면서 점수는 0-1이 됐다.

로페즈는 7회 박재상에게 1타점 적시타로 두 번

째 점수를 허용하면서 7이닝 7피안타 3사사구 5탈삼진 2실점의 성적을 남기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로페즈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KIA는 클린업트리오의 동반부진으로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이범호-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진 중심타선은 안타 없이 5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데 그쳤다.

김광현이 제구 난조로 고전하던 2회말 무사 1루에서 김상현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기선제압에 실패했다.

6회 공격에서 다시 한번 아쉬움을 삼켰다. 1사에서 김선빈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도루에 성공하며 2루까지 진루했지만 이범호가 범타로 물러났다. 곧이어 최희섭이 볼넷을 골랐지만 이번에는 김상현이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이닝이 마무리됐다.

김선빈의 안타와 이범호의 볼넷을 엮어 만든 8회 2사 1·2루의 기회는 최희섭의 유격수 앞 땅볼과 함께 사라졌다.

손영민과 박성호가 이어던지 9회초 KIA는 홈런과 4개의 2루타를 얻어맞으며 대거 4실점을 했지만,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신종길과 차일목의 연속안타로 1점을 만들어 간신히 영봉패를 면했다.

KIA는 28일 예이스 윤석민을 앞세워 반격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추 트레인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7일 2001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즈와의 경기에서 홈런을 쳐내는 모습. /연합뉴스

연아 맞수 마오 첫 훈련서 불안

주무기 트리플 악셀 점프 ‘흔들’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의 맞수로 꼽히는 아사다 마오(21·일본)가 모스크바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가진 첫 현지 훈련에서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다.

27일 마이니치 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사다는 26일(현지시간) 대회가 열리는 모스크바 메가스포츠 아레나 경기장에서 첫 공식 훈련을 치렀지만 주무기인 트리플 악셀 점프를 깨끗하게 소화하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아사다가 점프를 중심으로 점프에 나섰는데 트리플 악셀 점프에서 착지가 불안했다”고 지적했다.

아사다는 이날 소프트웨어 배경 음악이 울렸지만 초반에는 점프를 뛰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순서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후반 들어 더블 악셀과 콤비네이션 점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아사다는 “2연패에 대해 기대는 하고 있지만 내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오늘은 첫 훈련치고는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말했다.

아사다는 지난해 일찌감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새 시즌에 들어갔지만 점프의 균형이 무너지는 등 부진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자국 선수권대회에서 193.69점으로 준우승한 데 이어 올해 2월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도 준우승하며 컨디션을 다소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훈련에는 일본 피겨의 유망주인 무라카미 가나코도 참가했다.

무라카미는 트리플 토루프 점프 등에 성공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일본 언론은 또 아사다에 이어 훈련한 김연아에 대해 “한국의 전통 민요에 맞춰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을 훈련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터졌다 3호 홈런

4타점 맹타... 클리블랜드 승리 이끌어

‘추추 트레인’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즌 3호 홈런을 터뜨리는 등 4타점을 몰아치는 맹활약을 펼쳤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즈와의 홈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7회말 2루타를 때리는 3점 어치를 그렸다.

팀이 4-3으로 박빙의 리드를 지키던 7회말 1사 이후 주자를 1, 2루에 두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구원으로 올라온 신인 볼펜 투수 루이스 콜먼이 던진 초구를 놓치지 않고 받아쳤다.

직구가 한가운데로 물리면서 추신수가 치기 좋

게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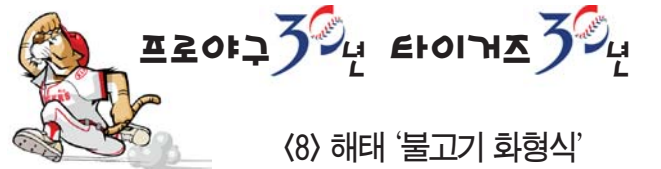
지난 7일 보스턴의 일본인 투수 마쓰자카 다이스케를 상대로 첫 홈런을 때렸던 추신수는 17일 볼티모어전 솔로홈런 이후 다시 열흘 만에 시즌 3호 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16일 이후 멀티히트를 기록한 날이 없을 정도로 타격 감각이 떨어져 있었으나, 이날 홈런 포함 2안타를 때리며 상승세의 발판을 마련했다. 타율은 0.221로 끌어올렸다.

4타점과 1득점, 도루 1개를 추가하면서 시즌 타점은 14타점, 도루는 5개째를 기록했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와 잭 하나한, 맷 라포타, 사이즈모어가 홈런 5방을 쏟아올린 데 힘입어 캔자스시티를 9-4로 완파하고 3연패에서 탈출했다.

/연합뉴스



(8) 해태 ‘불고기 화형식’

1984시즌 해태 타이거즈는 전년도 우승의 프리미엄으로 공식 개막전을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갖게 되었다.

해태 타이거즈는 전년도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를 홈으로 불러들여 2경기 연속 완봉승(1-0, 2-0)을 거두며 상큼하게 출발했다. 이 두 경기에서 팀 주력 투수인 이상윤과 김용남은 각각 5피안타와 4피안타 완봉승을 거두었다. 개막전에서 이상윤과 최동원의 피 마리는 완봉대결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해태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2연패 꿈은 MBC 청룡과의 첫 원정 3연전서 내리 3연패(1-2, 3-4, 1-7)를 당하며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3연패란 기록도 그렇지만 완봉승을 거둔 이상윤이 불과 이틀을 쉬고 사흘 만에 구원투수로 나서 4이닝 이상을 던지며 패전투수가 되었다.

김용남 역시 이틀을 쉬고 사흘 만에 등판해 구원패, 그리고 구원패한 다음날 또다시 선발투수로 나서 선발패하는 등 상식을 뛰어 넘는 무리수를 둔 결과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

우승 했지만 대우는 ‘뒷걸음’ 선수들 ‘사보타주’ 성적 추락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당시 투수들의 기량 차가 너무 심해 한두 투수가 흑사당하는 양상이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특히 신인들의 보강이 절대 부족해 흑사를 당했던 그 주축 투수들은 고장 난 어깨를 훈장처럼 가슴에 묻고, 몇년 후 소리 소문 없이 그라운드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고 만다.

해태 타이거즈는 전년도 우승의 여파를 활용하지 못한 채 전기를 5위로 마감하고 말았다. 1983시즌의 해태 타이거즈 타자들이 용광로처럼 불태웠던 불망이는 옛 바퀴 먹었는지 온데간데없고 패배의식만 깊어 갔다. ‘타격의 교과서’ 김중모만이 타율 0.316, 14홈런, 44타점으로 2년 연속 3할타자로 제 몫을 해냈을 뿐이었다.

해태 타이거즈 타자들의 슬럼프는 타격 기술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우승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속소사정은 더 나빠지고 메리트 시스템도 아예 사라지자 구단에 대해 발인 선수들의 ‘사보타주’였음을 아는 이들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 사건의 발단은 박건배 구단주가 마련한 회식자리에서의 ‘불고기 화형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마추어때부터 실력과 더불어 향명과 이탈의 대명사인 ‘풍운아’ 김일권이 선수들을 주동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야구사에 기록되었다. 해태 타이거즈는 후기에 시기일전에서 ‘캔틀의 귀재’ 강만식(11승4패)을 앞세워 반격에 나선지만, 선수들의 기량 못지않게 팀워크가 경기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훈으로 남기고 후기 3위로 한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노승열·존슨·엘스 장타 대결

한국의 ‘영건’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이 이천 블랙스톤 골프장에서 열리는 유럽프로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 더스틴 존슨(미국)과 장타 대결을 펼친다.

대회조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조 편성표에 따르면 노승열은 존슨, 어니 엘스(남아프)와 함께 28일 낮 12시20분 1번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 세 선수는 29일 오전 7시20분 10번홀에서 2라운드 티오프를 한다.

/연합뉴스

엔틱가구전

4월 30일까지 특별가 판매
 식탁 · 좌탁 · 거실TV장 · 침대

이태리 직수입 → 도소매
 밀라노 5개사 한국총판

**신상품
다량 전시**

화정동점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 화정동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 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

홍스페이스 SPACE 062-226-7567